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87호 [루게 제24865호] 주체104(2015)년 3월 28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관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관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동지
나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나의 생일 79쪽에 즈음하여 따뜻한 인사와 훌륭한 축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두 당, 두 국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가 계속 끊임없이 강화발전되리라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과 승고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합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쑤 말 리 싸 이 나 쏜
2015년 3월 11일 비엔티안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쳐가시는 김정은령도자

나이제리아단체 인터넷에 글 게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36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16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인민적령도자의 풍모》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인민들로부터 다함없는 호모를 받고계신다. 이것이 오늘날 국제사회를 감동시키고있다.
그대면 공적 정치 무대에 등장한 지 얼마 안 되시는 김정은령도자께서 어떻게 되어 인민들로부터 그처럼 열화같은 호모를 받으시는가.
그에 대한 답은 절세위인께서 끊임없이 펼쳐가시는 인민사랑의 화폭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인민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정을 부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적극 헌신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선진적인 탐사기술을 탄광들에 도입할데 대한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 가치있는 탐사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국가과학원 중앙실험분석소의 과학자들도 수입에 의존하던 수입종의 분석용표준물질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연구완성함으로써 나라의 진정한 품질관리와 규격화 사업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당의 대자연계조수상을 높이 받들고 국

태양절 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태양절경축 구간대전준비위원회의 결성식이 19일 캄팔라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은 구간들의 각계 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반대성단체성원들이 참석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고문으로 구간대통령상급고문끼리다 기베전자, 위원장으로 구간대통령부 국장 헨리 마씨코, 서기장으로 범아프리카운동 구간대전조직행위위원회 위원장 다니엘 무가라마가 선출되었다.
끼리다 기베전자와 헨리 마씨코는 연설에서 태양절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동의 명절이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류사주위업의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업적을 우간다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 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강성국가 건설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강령적지침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에 대한 반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것은 체육강국건설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 7차 전국체육인대회
대중체육열풍을 더욱 세차게
팽산군인민위원회 부장 안순철은 골결에서 그림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 크나큰 감격에 대해 이야기하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력사적인 서한에서 체육강국건설은 우리 나라를 체육으로 흥하는 나라, 체육으로 강대해지려는 나라로 만드시려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셨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념원을 현실

성구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증시하는 크나큰 전진인 체육강국건설에서 우리 맹산군이 전국의 앞장서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신인주시당위원회 부부장 최원진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체육을 즐겨하고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물결쳐 하는데서 일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시안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깊이 학습하고있다. -체육성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시대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다. 세계적인 탁구발전추세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탁구소조를 더욱 실속있게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적극 탐구 도입하는데 열정을 다 바쳐나갔다. 하여 나라의 탁구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인제들을 더 많이 키워내었다.
체육성에 파견된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한사람인 평양컴퓨터기술대학 교원 김정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받아안은 흥분도 크고 나라의 체육강국건설에 이바지할 과학기술성공과를 더 많이 마련해갈 결심도 더욱 확

정기사업 확고히 앞세워
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선수들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 5대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당과 수령의 온과도 조국의 귀중한 자원을 아끼고 경기마당에서 혁혁한 성과를 안아오는 당의 참된 체육인으로 튼튼히 기우었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 꽃피는 사회주의농촌

안주시 덕성협동농장을 찾아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전진하는 내 조국의 숨결인양 불멸영동전투로 뚝뚝한 사회주의협동농장의 전경은 실로 장관이다. 우리가 찾았던 안주시 덕성협동농장도 다름없었다.

이곳을 돌아보며 우리는 정력적인 영동로 농장을 일하고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시켜주신 절세위인들의 영도업적과 그들 빛내이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기는 농업근로자들의 불같은 열의를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며오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불러주신 주체혁명업무를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임무이고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안주시 소재지에서 청천강을 건너 얼마간 가면 2층으로 훌륭히 건설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이며 탁아소, 유치원건물과 문화주택들 등이 한눈에 안겨오는 농장이 있다. 예가 바로 안주시 덕성협동농장이다.

《우리 덕성협동농장이 일하고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의 덕이랍니다.》

정치 세력진 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 표식비를 가리키며 하는 농장일꾼의 말은 위대한 인민들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절절히 울리었다.

혁명사적표식비의 글발을 되새기느라니 오로지 인민을 위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엄중실천에도 농장별에 정력적인 영동의 자욱을 짙으니 능자 부흥할 길을 완히 밝혀주시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경도의 마음이 가득 차내었다.

불멸의 글발을 되새기는 우리에게는 못 잊을 그 나라의 화복들이 선히 안겨왔다.

주제 61(1972)년 2월 어느날, 인민을 위한 헌신의 자욱을 이 교장에도 새기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논이 모래성분이 많고 척박하기때문에 질 좋은 두엄을 더 많이 내고 흙갈이를 하여 지력을 높이면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다고 그 방도도 친히 가르쳐주시었다.

그리고 농장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이따금 문화주택들을 많이 지어 덕성리 마을을 살기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꾸밀때 대하여서와 남새농사를 잘하여 덕성리 주 주민들에게 남새를 넉넉히 공급할대 대하여도 간곡히 이르시었다.

추운 겨울날에도 이 농장근로자들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푸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는 일꾼들의 가슴마다에 넘쳐났던 뜨거운 격정이 우리의 가슴에도 미쳐왔다.

한평생을 오로지 이 땅에 일하고도 좋고 살기도 좋은 인민의 락관을 영대하시러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로고가 어려우리는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 다음해에도 덕성당에는 격정의 화폭이 펼쳐졌다.

주제 62(1973)년 1월 초순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도의 자욱을 이 교장에 새기셨었다.

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덕성협동농장은 산과 강이 있고 벌도 있어 살기 좋은 교장이라고 하시면서 호랑분배정형도 친히 알아보시고 일을 더 잘 할대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해서는 토지를 정리하고 기계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리고 학교교육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릴대 대하여 이르시었다.

덕성협동농장의 보다 좋은 배일을 위해 엄중실천의 계절에도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기시며 그토록 마음쓰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과 경도의 정으로 우리 가슴은 뜨거워졌다.

우리는 2중3대혁명붉은기 제3작업반을 찾았다.

작업반실수변에 심은 수삼나무들이 키 높이 자란것도 분만 하지만 붉은기들이 나뭇가지는 작업반실 앞마당에 거름더미들과 흙보산비더미들이 무뚝뚝 쌓여있는것이 이채로웠다. 절세위인들의 자욱이 력력한 자기들의 농장을 사랑하고 위하는 이 농장일꾼들의 마음이 엿보이는 반경이었고.

우리는 작업반실에서 둘러섰다. 소담스러운 바닷물이 풍성히 자라는 온실을 보노라니 퍼섯 2중3대혁명붉은기간워가 다드라는 생각이 들었다.

속생각을 더 놓는 우리에게 향덕근 작업반장은 별로 한 일이 없다며 농장에 갖는 절세위인들의 영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해 더욱 분발할 마음뿐이라고 말하였. 그의 말은 덕성협동농장 주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기도 하였다.

애오라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낮이 나 밤이나 포진걸을 견고걸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따라 투쟁과 전진, 번영의 련사를 대를 이어 빛내어갈 불같은 마음담아 농장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표식비를 정히 새겼다.

불멸의 자욱이 어린 농장을 더욱 살기 좋은 교장으로 꾸밀 마음안고 이들은 올해도 모두가 떨쳐나 마음과 도로주변에 수장이 좋은 나무들을 심고있다.

해마다 구불한 바닷파기를 진행하여 자기들이 사는 교장을 더욱 훌륭히 꾸려간다는 이슬은 아이다.

포전에 무뚝뚝 쌓여있는 거름더미를 돌며 농사를 잘 지어는 한층의 기쁨이라도 더 내어 농사를 잘 지어는 이 농장 사람들의 마음을 엿볼수 있었다. 자기들이 사는 교장을 더 훌륭히 꾸릴 마음안고 이들은

2층짜리 편의봉사건물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있었다.

농장별은 드바빠 일손을 늘리는 농업근로자들로 하여 끓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일면단심 총정다해 받들어오시며 썰로써 결사옹위하는 애국농민이 될 열렬한 마음담아 이 농장 사람들은 선군조선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칭송하는 글발을 아로새기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받아안고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아 절세위인들의 영도업적을 더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빛내일 결의를 굳게 다지었다.

《뜻깊은 올해에 우리는 농장별에 거어 이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로운 가을을 열치고 조신로동당창건 70돐을 자랑스럽게, 멋있게 맞이할것입니다.》

영결에 넘친 한광청년리위향청의 말은 농장주민들의 불같은 마음을 담고서 저력있게 울리었다.

열렬한 그 마음들에 떠받들려 힘차게 전진하는 덕성협동농장의 오늘도 좋지만 매일은 또 얼마나 좋을것인가.

붉은기들이 휘날리고 트랙터들의 발동소리 드높이 울리는 이곳 농장별에서 우리는 절세위인들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영도따라 더 좋은 배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이 농장 사람들의 열정과 마음을 절감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불같은 투쟁과 노력으로 밝아온 덕성협동농장의 더 밝은 배일을 확인하였다.

본사기자 김인선

한 줌의 흙의 후과

무릇 사람들은 애국에 대하여 말을 한다. 애국! 한없이 숭엄한 이 부름앞에 설 때면 누구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어디서 시작되고 조국을 위하여 참담계 산다는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할것이다. 그러면 참다운 애국의 마음은 어떻게 움터나며 꽃피어나는 것인가.

이 물음에 우리는 하나의 혁명열화를 통하여 대답하려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사랑을 열렬히 사랑하시었고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한 애국의 행적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깎고리 바치시어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승용차가 한 농촌마을을 지나고있을 때였다.

차장도 후려가는 조국의 산과 들, 인민들의 밝은 모습을 보시며 미소를 지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급히 차를 멈추도록 하시었다.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을볕 포밭으로 향하시었다.

영문을 따라 뒤따르던 일꾼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물에 젖어 내린 발머리를 보시였었다.

협상하게 페인 발머리를 이윽히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안색은 흐려지시었다. 그의께서는 격하신 음성이 나오니 나라의 재부중에서도 제일 귀한것이 땅인데 땅관리를 어떻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고 하시며 몸소 땅이 페인 곳에 돌을 날라다 쌓으시었다.

최재감에 머리를 숙이는 일꾼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존경히 타이르시었다.

등우들이 흙 한줌이 얼마나 귀중하나 하는것을 모른다. 한 줌한줌의 흙이 땅덩어리를 이루고 그 땅덩어리가 바로 조국이다. 이 세상에 조국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

선렬들의 피와 땀이 스며있고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사랑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재부가 손실되는것이 그보다 가슴아프시어 누구나 스쳐리던 가을엔 발머리에서 그처럼 바쁘신 현지지도일정으로 뒤로 미루시고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

농장의 경지면적에 올라있지 않은 땅이라고 하여 이곳 일꾼들도 소홀히 대하던 땅이었다.

한줌의 흙이라도 무시해대하지 않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세계앞에 일꾼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렇듯 우리 장군님의 혁명생애는 순간순간이 그 누구도 마를수 없는 열렬한 애국의 넘으로 수놓아진 위대한 애국의 한층이었다.

한줌의 흙과 조국, 조국이 한없이 소중한가에 항일투사들은 사랑하는 조국의 한층 흙을 가슴속에 품어안고 항일의 불바다, 피바다 만리물

헤쳐왔고 가련한 전화의 나날 인민군용사들은 조국의 한치한치의 땅을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왔다.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 땅을 자기의 살처럼 여겨왔다.

조국에 대한 사랑은 이 땅의 한층 흙, 한그루 나무로부터 시작된다.

자기 집담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자기 고향과 일터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썩트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자리나는것이 애국이다.

자기의 부모처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고향마을과 일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조국과 인민을 사랑할수 없으며 참다운 애국자로 될수 없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애국주의의 숭고한 련이다.

땅속에 묻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 보석과도 같이 참다운 애국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어도 누가 알아주진말건 조국의 대지에 자신의 성실한 땀과 깨끗한 땀을 아낌없이 바쳐간다.

천만군민이여,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에 간직하고 조국의 나무 그루, 풀 한포기, 한줌의 흙까지도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담고서 참다운 애국자가 되자.

우리 인민모두의 삶의 러적이며 행복의 요람인 사회주의조국은 애국자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 그들의 진실한 애국의 땀방울을 생생수, 자랑분으로 할 때에 더욱 융성번영할것이다.

채희성



연혁소개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체육단들이 걸여온 자랑찬 역사를 감회깊이 되새기고있다. -기판차체육단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적음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언제 어디서나 인민에 대한 한없이 열렬한 사랑으로 가슴 불태우시었다.

모든 사고와 행동의 첫지리에 언제나 인민을 놓으신 우리 장군님.

인민에 대한 그이의 사랑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지어보지 못한 불같은 뜨거운 사랑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한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도 그 강렬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우리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은 이 나라 인민모두에게 한결같은 그늘도 없이 비쳐드는데 언제나 응시되고 뜨거우것이

었다.

하나의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잊을수 없다.

주제 97(2008)년 1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의 한 평산을 찾아주시었다.

평산일꾼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꿈결에도 뵈고싶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멀고 험한 길을 헤치고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 주실줄 어이 알았으랴.

그이께서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차에서 내리실 때 그들은 감격에 목이 메어 감사의 인사도 변변히 드리지 못하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강도를 찾으시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의 일터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있어 장군님을 뵈옵지 못한다는 아쉬움속에 날을 보내고 있던 그들이였다.

정겨운 시선으로 일꾼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을 많이 한 평산일꾼들과 로동계급이 보고싶어서 왔다고, 자강도에 왔다가 이 평산을 돌아보지 못하고 가는것이 마음에 걸려 왔다고 하시면서 이곳 로동계급이 기다릴것 같아 평산에서 다시 길을 돌려세워왔다고 하시었다.

일꾼들은 부뻐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이 문제 안에 이 기념사진도 찍어 주시고 오랜 시간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평산로동계급의 영웅적위훈에 대하여 거듭 치하해 주시었다. 떠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로동계급을 직접 만나보시었다 못해 기쁘신듯, 그래서 미더운 그들과 헤어지는것이 더 아쉬우신듯 차창을 열고 오로데로 손을 저어주시었다.

자신의 로고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직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풀없이 이어가신 길위에 수놓아진 전설같은 이야기는 그 열아하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있어서 이 나라의 그 어느 외진 곳에 있는 병사들이건 로동계급이건 모두가 그이의 더없이 귀중한 혈육이었다.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에서 초소군무에 나가

기업활영에 참가하지 못한 전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바치시어 사전을 짚어주시는 이야기며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큰 사업에 앞서서 그로 하여 철거할 인민들의 살림문물부터 풀어주도록 하신 이야기들 비록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은 우리 장군님의 따스하신 사랑의 세계를 그대로 전해주시었다.

정녕 인민의 커가는 기쁨과 행복에서 만사물을 다 푸시며 삶의 희열도, 인생의 락도 찾으신분, 평범한 병사들과 인민들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간직되어있는 소원까지 다 헤쳐보시고 정진을 쏘아부으신사, 이 나라 천만군민모두를 한사람 한사람 다 품어안으시고 뜨거운 정을 나누시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장군님이시었다.

본사기자 김철혁

제 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 진행

【평양 3월 27일합 조선중앙통신】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이 27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강습에서는 나라의 체육발전에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며 우리 당의 위대한 체육강국건설시상을 하루빨리 실현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이 취급되었다.

강습에서는 먼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의 기본내용이 강조되었다.

로작의 기본사상은 체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가까운 몇해안에 우리 나라를 존엄높은 체육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우자는 것이다.

로작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나라와 민족의 강성번영을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탁월한 사상과 영도로 주체체육이 나아갈 앞길을 완히 밝혀주시였으며 체육강국건설의 새 련사를 펼치신데 대하여 명시되었다.

또한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주체적체육건설사상과 의도에 맞게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셨으며 새 나라에 체육중시기풍이 서고 체육열기가 전례없이 높아지고있으며 체육인들속에서 훌륭한 경기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데 대하여 밝혀져있다.

로작에는 체육부문 사업이 당의 요구와 인민의 기대에 비추어볼 때 응당높이 이르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서도 지적되어있다.

체육강국건설은 우리 나라를 체육으로 흥하는 나라, 체육으로 강대해지는 나라로 만드시려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애국사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가까운 몇해안에 우리 나라를 존엄높은 체육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우자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로작에는 체육강국건설에서 우리 당이 내세운 중요한 목표가 제시되어있다.

그것은 나라의 전문체육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패권을 쥐고 나라의 존엄과 기상을 높이 떨치도록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체육인들이 들고나가는 할투쟁구호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의 결승선을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자!》를 제시하시었다.

로작에는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과정과 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체육인들은 선군시대 혁명적체육의 영예로운 본분과 조국과 인민의 높은 기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위투사가 되어야 한다.

체육인들은 백두의 넘과 기상을 지니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장사로 튼튼히 준비하며 우리 식의 위대한 경기전법으로 국제경기들마다에서 현전승하여야 한다.

체육인들을 사상정신적으로, 육체기술, 전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기본과리는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하는것이다.

훈련과 경기의 조직자, 집행자인 감독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우리 식의 우월한 경기전법들을 창조하고 적극 활용해나가는 하며 체육경기를 많이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승산이 있는 체육종목들을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을 넣으며 체육선수후비육성과 체육일군양성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체육지도일꾼들과 체육단 감독, 체육교원들을 비롯한 체육일꾼들의 수효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야 한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인민이 체육을 즐겨하고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들끓게 하며 체육의 과학화를 힘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체육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육지도기판들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나라의 체육발전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대외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며 체육부문의 물질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와야 한다.

체육에 대한 사회관심을 더욱 높이며 체육인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워주고 대대해주어야 한다.

체육사업에 대한 당지도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강습에서는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체육중시사상과 체육부문에 쌓아올린 불멸의 영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이 강조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체육사상리론을 제시하시어 주체체육이 나아갈 앞길을 완히 밝혀주시었다.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제도를 확립하시였으며 체육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도록 이끌어주시고 체육인대오를 튼튼히 꾸려주시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떨쳐가는 새시대를 펼쳐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로 체육발전의 일대 전성기를 안아오시었다.

우리의 체육을 영원히 수령님의 사상이 펼쳐지 구현된 주체의 체육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인민군체육을 본보기로 하여 나라의 전민적체육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식의 위대한 경기원칙, 경기방법을 제시하여주시고 체육강국건설의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받들고 체육강국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시었다.

전사회적인 체육중시기풍을 세워주시였으며 빨치산식경기전법을 제시하시었고 체육의 과학화를 실현하여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해주시었다.

사회주의문명국을 대표하는 현대적인 체육문화시설들을 수없이 일떠세워주시였으며 나라의 체육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강력한 지도체계를 세워주시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체육부문에 주신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체육중시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체육강국건설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강습에서는 또한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며 체육경기를 우리 식의 전법으로 진행할대 대한 문제들이 언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체육경기를 빨치산식으로, 공격적인 전법으로 진행할대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어 우리 식의 경기원칙, 경기방법의 위력을 더욱 높이 펼칠수 있는 힘있는 무기를 안겨주시었다.

체육선수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지니고 경기에서 사상전, 투지전을 힘있게 벌리며 고상한 체육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그 어떤 강한 상대와 맞대어도 정치사상적무기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싸우며 끝까지 경기를 해나가야 한다.

체육선수들은 불이 변해 나게 상대를 압도하는 공격적인 전법으로 속도전의 위력을 펼쳐야 한다.

주타격방향과 공격시기를 잃게 설정되고 선택하며 공격속도를 쇠퇴로 하여 반공격과 연속공격을 틀어대야 한다.

체육과 학부문의 공격속도를 쇠퇴로 하여 반공격과 연속공격을 틀어대야 한다.

기묘하고 명활무쌍한 빨치산전법

을 구현하여 기술전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조선사람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우리 식의 독특한 기술과 전술을 부단히 완성하며 각이한 경기정황과 대상의 특성에 따르는 기묘하고 다양한 전술을 창안하고 능란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강습에서는 체육을 과학화할대 대한 방침을 철저히 판철하여 나라의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대한 문제들이 강조되었다.

체육선수후비선발과 육성사업, 체육교수훈련, 경기준비와 지도를 과학화하여야 한다.

체육의 과학화를 실현하려면 체육부분 기술일꾼들이 이 사업에 대한 훌륭한 판철과 힘장을 가져야 하며 선수, 감독들과 기술일꾼들의 체육과학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체육과학부문에서는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그 성과를 교수훈련에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체육단, 청소년체육학교들에서

체육의 과학화를 위한 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물질적조건을 잘 갖추어야 한다.

강습에서는 또한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온 나라를 체육열기로 들끓게 할대 문제, 학교체육을 강화하며 체육선수후비육성사업을 잘할대 대한 문제, 제3차 올림픽경기대회를 앞둔 세계체육계의 움직임에 대한 문제 등이 취급되었다.

강습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체육건설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우리 나라를 존엄높은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려는 당의 의도에 대하여 더욱 튼튼히 새겨안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의 높은 기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군시대 체육인으로서의 맡겨진 책인과 본분을 다함으로써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슬기와 용맹을 만방에 떨쳐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었다.



미국의 극악 무도한 대조선제재 압박책 동은 상상할수 없는 파국적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미국이 극악무도한 대조선제재압박일변도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지난 1월부터 오바마는 《쏘니 픽처스》 영화제작보급사가 해킹공격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사건을 결코 우리에게 추가제재를 가하는 대통령행정부명령을 발동하는것으로 올해 대조선제재압박의 선고를 했다. 이어 2월에 는 미국회 하원 외교위원회가 대조선제재압박법안이라는것을 채택하였다.

미행정부와 국회가 손발을 맞춰가며 승백 내기로 우리에게 대한 제재에 열을 올리는것은 지난 시기에는 찾아볼수 없었던 일이다. 미국은 국제금융감독기구를 사색하여 우리 나라를 《유엔조치에 필요한 나라》로 제정하고 유엔대조선제재위원회의 임기를 1년간 더 연장하였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우리의 해상운수활동에 대한 2중3중의 제재압박을 형성해오며 하고있다.

보다 악랄하고 비열한것은 국제기구들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하는 우리 일꾼들과 다른 나라들에 주재하며 일하고있는 노동자들과까지 제재목표로 삼고 우리의 무역활동과 《돈줄》을 차단하려고 여러차례 획책하고있는것이다.

초보적인 리성도 없고 인문도덕도 국제법도 자취없는 미국은 지금 우리의 명줄을 조일수 있는것이라면 그 어떤 제재도 가림없이 무차별적으로 가하려고 미친개마냥 날뛰고있다.

초강대제재압박으로 우리의 경제를 질식시키고 사회혼란을 조성하며 병진로선의 판첩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아보려는것이 미국의 용악한 범죄적수괴이다.

우리의 자주권은 물론 생존권마저 빼앗으려고 악을 쓰는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은 더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으며 조미대판에는 해소가능한 엄중한 상태에 이르고있다.

미국이 대조선제재압박일변도에 매여달리고있는것은 힘을 통한 압박만으로는 우리의 핵병력강화도 경제성장을 막을수 없다는 데로부러 선명한 공적책이며 제재고백을 바싹 조여서라도 우리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최후압박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에 들어와 미국은 힘과 제재라는 두

수단으로 우리를 압박하여 《선 변화》를 실현해보려고 무모하게 발광해오고있다.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남조선 피폐당과 야합하여 어느 한달도 빼놓지 않고 북한핵전쟁소동을 강행해오고있다. 연합해상훈련과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에 이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등을 광범적으로 벌여오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는 핵전쟁의 문턱에 이르러 접근하고있다.

조선반도를 방사능기름속에 밀어넣어서라도 세계지도에서 조선이란 주권국가라는 이름 없애버리려는 악마적극의 용악한 본성이 현수 드러나고있다.

조선반도 엄중한 정세는 악의 근원인 미국을 무사히하게, 깨끗이 쏘어버리지 않고서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도, 세계의 안정도 보장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다시한번 가르쳐주고있다.

백전백승의 탁월한 선군명장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명한 지도밑에 권위적 진행된 미제침략군 항몽모합력격단에 대한 군공투쟁 훈련과 최첨단수준에서 개발된 신형반함전포트미사일발사, 심회력타격 및 정밀공을 위한 연습, 비행장타격 및 복구훈련 등은 우리 혁명부력의 막강한 군력과 밀적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특히 핵전쟁을 포함한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준비되어있으며 미국의 종국적 멸망을 앞당길것이라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권, 혁명부력의 필승의 의지가 담긴 당대부쟁한 철의 선언은 온 세계를 뒤흔들며 위성이 되어 세계 진보적인인민들에게는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미제침략자들을 비호하는 온 적대세력들에게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들뜨게하고있다.

미국내에서도 다급한 비명들이 터져나오고있다. 조미사이에 대화가능성은 점점 사라지고있는 반면에 핵무기사용까지도 넘어서 온 물리적충돌가능성만 현실화되고있다. 그리고 하면서 수습무력으로 어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오바마정권에 대한 비평이 계속 쏟아져나오고있다.

《화성미의 필승을 대변한다》 하는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정권이 이란 핵문제해결에 빠져있는 사이에 조선은 미국

의 무관심을 역리용하여 핵무력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정부가 조선의 핵을 계속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것은 올바른 대응으로 볼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그보다 앞서 《뉴욕 타임스》는 《북조선이 신속하게 협상에 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내보내어 비대한 미국의 힘을 믿고 미국에게 놀아내는 오바마정권을 수위적으로 공격하였다.

하루강자지 법 무사운출 모른다는 격으로 첩없이 날뛰다가는 조선반도가 아니라 미국본토가 통째로 죽음의 방사능해치대에 휩쓸릴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미국과 여러 나라 전문가들, 언론들은 조선이 핵보유를 인정하기 위한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였으며 이제 남은것은 미국이 조선의 핵무장추진속도, 불의의 핵선제타격능력등을 어떻게 저지시키겠다는 가 하는 것뿐이라는 평판을 쏟아내고있다.

《오바마의당파의 미련하고 얄팍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돌아오는 필연적인 귀결이다.》

미국이 조선 《위협》설을 최대로 부각시켜 우리를 《악마》로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관계에 왜곡을 하고 국제적인 대조선제재압박을 구축하여 공화국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한 포석이라는 전쟁을 나날이 확대하고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 등 단호히 분쇄해 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미국이 지난 시기에 떠돌아다니던 대화와 압박의 양면정책까지 재버리고 제재압박일변도로 무모하게 나오고있는 현 사태와 관련하여 본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싸움으로서는 대미적격심과 필승의 의지를 담아 추후도 흔들림 없는 필승을 위한 단호한 명백히 밝힌다.

《첫째, 미국의 포악한 제재압박책은 곧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이며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판전을 핵으로 끌장내려가는 우리의 단호한 결단이다.》

미국이 사상한 제재를 가한다고 하여 우리가 자기의 사상과 제도, 자기가 선택한 길을 포기하리라고 생각하는것은 백지, 천

개, 대륙간단도미사일들은 20~30기를 보유하고 전술핵무기들을 실전배비하게 될것이라고 확약 떠들고있다.

지난 시기에 우리의 핵능력을 필수록 별치 않은것으로 무시하려 하던 오바마일당이 오늘에 와서 《위협》으로 요란하게 포장하여 광고하고있는것은 저들의 반공화국제책동을 합리화, 정당화하고 국제적제재압박에 우리 주변나라들을 비롯하여 세계 많은 나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이다.

오바마일당의 그 비열한 술책은 오히려 저들의 대조선정책이 완전히 파산되고있음을 인정하는것이나 같다.

미국과 여러 나라 전문가들, 언론들은 조선이 핵보유를 인정하기 위한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였으며 이제 남은것은 미국이 조선의 핵무장추진속도, 불의의 핵선제타격능력등을 어떻게 저지시키겠다는 가 하는 것뿐이라는 평판을 쏟아내고있다.

《오바마의당파의 미련하고 얄팍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돌아오는 필연적인 귀결이다.》

미국이 조선 《위협》설을 최대로 부각시켜 우리를 《악마》로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관계에 왜곡을 하고 국제적인 대조선제재압박을 구축하여 공화국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한 포석이라는 전쟁을 나날이 확대하고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 등 단호히 분쇄해 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미국이 지난 시기에 떠돌아다니던 대화와 압박의 양면정책까지 재버리고 제재압박일변도로 무모하게 나오고있는 현 사태와 관련하여 본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싸움으로서는 대미적격심과 필승의 의지를 담아 추후도 흔들림 없는 필승을 위한 단호한 명백히 밝힌다.

《첫째, 미국의 포악한 제재압박책은 곧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이며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판전을 핵으로 끌장내려가는 우리의 단호한 결단이다.》

미국이 사상한 제재를 가한다고 하여 우리가 자기의 사상과 제도, 자기가 선택한 길을 포기하리라고 생각하는것은 백지, 천

개의 어리석은 망상이다. 우리의 사상이 제일이고 우리의 제도가 제일이며 우리가 선택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에 모든 승리와 영광, 존엄이 담보되어있다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이 실지체함을 통하여 굳게 간직하는 철의 신념이다. 그 누구도, 그 무엇보다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끝까지 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이미 선택한 길을 변함없이 가려는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흔들어서놓을수 없다.

우리의 경제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그 어떤 제재도 꺾이지 이겨낼수 있는 강력한 힘을 우리는 구하여 숨기지 않는다.

핵선제공격이든 핵보복타격이든 최후선택, 최종결전은 철저히 우리 손에 쥐여져있다.

오바마일당은 대조선제재압박에 미쳐날뛰는것이 중앙에는 온 미국명을 핵참혹에 밀어넣는 무지몽매한 망상으로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둘째로, 미국이 우리의 《핵문제》를 흥정각우에 올려놓고 다른 나라들과의 공동, 결타에 어리석게 매여달릴수록 우리의 조국통일대진시표는 보다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제재와 대화가 병립할수 없다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가 내린 최종결론이다.

우리의 핵을 빼앗기 위한 대화 아닌 대화, 회담 아닌 회담을 강요하는것은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도이고 우리의 존엄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셋째로, 미국이 공모결핵을 속박공문을 벌리면서 우리의 핵을 빼앗아보려고 흥정각우를 벌려놓는것 자체를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고 핵으로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치욕스러운 행위를 저지하려는 열의의 일로 되겠다. 그 누구도 우리의 핵을 가지고 이러

를 평원

충저러공 시비질할수 없으며 미국과 그에 아무굴종하면서 자기의 체면도 저버린자들은 우리의 《핵포기》에 대하여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자주권, 생존권에 대한 위협, 우리의 자위적국방력을 약화시키려는 온갖 시도들은 곧 미국의 종국적멸망으로 이어질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세계의 평화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우리에게 대한 제재압박공조의 고배를 조이는것만큼 그에 정비배하여 우리의 핵무기현대화와 실전배비도 더욱 빨라질것이다.

《셋째로, 미국의 제재압박이 가중될수록 우리는 병진로선을 더 높이 추켜올리고 최후승리를 반드시 앞당겨줄것이다.》

미국의 제재가 가중되고있지만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우리의 경제는 지금 장성의 궤도를 확고히 타고있다.

우리 나라가 수십년간 다지고자하는 자립경제의 위력으로 경제강국의 지위에 오르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제재라는 환기에 빠져 합법적권리인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까지도 일부 나라들을 부추기고 교역 《국제법위반》으로 몰아내는 미국의 억지공사야말로 소가 웃다가 꾸미미러질 노릇이다.

미국이 광분하고있는 반공화국 《인권》소동 역시 단말막적인 말밖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필연코 파산을 면치 못한다.

《핵으로 위협을 가하지 못하게 된 미국이 《인권문제》를 꺼내든것 자체가 가소롭기 짝이 없다.》

모든 현실은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로선이 얼마나 정당하며 온을 내리고있는가를 예언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아직도 회담을 차리지 못하고 대조선제재압박일변도로 계속 나간다면 그로 하여 불리한 상상할수 없는 파국적상황에 빠져들게 될것이라는것을 엄숙히 경고한다.

우리는 앞으로 병진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올리고 대조선압박에 발광하는 미국의 종국적멸망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공공구조물 건설공정들을 힘있게 벌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입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서 대중의 앞장머리 뒤고 또 뒤머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들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남양탄광 일꾼들과 탄부들이 석탄산을 높이 쌓고있다.

정조부터 현재까지 탄광의 석탄생산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3배이상으로 뛰여올랐다.

생산의 향적장성은 로력, 설비, 자체의 증가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탄광의 로력, 설비, 자체보장조건을 놓고보면 지난 시기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탄광의 석탄생산은 석탄생산에 비해 대우에 열려있었다.

입군 탄광을 찾았던 우리는 탄부들에게 물었다.

그들의 대답은 결경같았다. 탄부들을 위한 일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판결을 가지고 좋은 일을 끊임없이 찾아오는 일꾼들의 모습에서 당정책의 정당성을 심층으로 느끼고 또 일터에 대한 애착이 강렬해지며 장수의 열정은 활화산처럼 터져

남양탄광 일꾼들의 사업에서

출근하는 원수님들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남양탄광 일꾼들과 탄부들이 석탄산을 높이 쌓고있다. 정조부터 현재까지 탄광의 석탄생산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3배이상으로 뛰여올랐다.

생산의 향적장성은 로력, 설비, 자체의 증가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탄광의 로력, 설비, 자체보장조건을 놓고보면 지난 시기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탄광의 석탄생산은 석탄생산에 비해 대우에 열려있었다.

입군 탄광을 찾았던 우리는 탄부들에게 물었다. 그들의 대답은 결경같았다. 탄부들을 위한 일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판결을 가지고 좋은 일을 끊임없이 찾아오는 일꾼들의 모습에서 당정책의 정당성을 심층으로 느끼고 또 일터에 대한 애착이 강렬해지며 장수의 열정은 활화산처럼 터져

출근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입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서 대중의 앞장머리 뒤고 또 뒤머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들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남양탄광 일꾼들과 탄부들이 석탄산을 높이 쌓고있다. 정조부터 현재까지 탄광의 석탄생산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3배이상으로 뛰여올랐다.

생산의 향적장성은 로력, 설비, 자체의 증가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탄광의 로력, 설비, 자체보장조건을 놓고보면 지난 시기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탄광의 석탄생산은 석탄생산에 비해 대우에 열려있었다.

입군 탄광을 찾았던 우리는 탄부들에게 물었다. 그들의 대답은 결경같았다. 탄부들을 위한 일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판결을 가지고 좋은 일을 끊임없이 찾아오는 일꾼들의 모습에서 당정책의 정당성을 심층으로 느끼고 또 일터에 대한 애착이 강렬해지며 장수의 열정은 활화산처럼 터져

출근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입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서 대중의 앞장머리 뒤고 또 뒤머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들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남양탄광 일꾼들과 탄부들이 석탄산을 높이 쌓고있다. 정조부터 현재까지 탄광의 석탄생산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3배이상으로 뛰여올랐다.

생산의 향적장성은 로력, 설비, 자체의 증가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탄광의 로력, 설비, 자체보장조건을 놓고보면 지난 시기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탄광의 석탄생산은 석탄생산에 비해 대우에 열려있었다.

입군 탄광을 찾았던 우리는 탄부들에게 물었다. 그들의 대답은 결경같았다. 탄부들을 위한 일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판결을 가지고 좋은 일을 끊임없이 찾아오는 일꾼들의 모습에서 당정책의 정당성을 심층으로 느끼고 또 일터에 대한 애착이 강렬해지며 장수의 열정은 활화산처럼 터져

출근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입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서 대중의 앞장머리 뒤고 또 뒤머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들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남양탄광 일꾼들과 탄부들이 석탄산을 높이 쌓고있다. 정조부터 현재까지 탄광의 석탄생산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3배이상으로 뛰여올랐다.

생산의 향적장성은 로력, 설비, 자체의 증가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탄광의 로력, 설비, 자체보장조건을 놓고보면 지난 시기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탄광의 석탄생산은 석탄생산에 비해 대우에 열려있었다.

입군 탄광을 찾았던 우리는 탄부들에게 물었다. 그들의 대답은 결경같았다. 탄부들을 위한 일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판결을 가지고 좋은 일을 끊임없이 찾아오는 일꾼들의 모습에서 당정책의 정당성을 심층으로 느끼고 또 일터에 대한 애착이 강렬해지며 장수의 열정은 활화산처럼 터져

출근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입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서 대중의 앞장머리 뒤고 또 뒤머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들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남양탄광 일꾼들과 탄부들이 석탄산을 높이 쌓고있다. 정조부터 현재까지 탄광의 석탄생산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3배이상으로 뛰여올랐다.

생산의 향적장성은 로력, 설비, 자체의 증가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탄광의 로력, 설비, 자체보장조건을 놓고보면 지난 시기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탄광의 석탄생산은 석탄생산에 비해 대우에 열려있었다.

입군 탄광을 찾았던 우리는 탄부들에게 물었다. 그들의 대답은 결경같았다. 탄부들을 위한 일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판결을 가지고 좋은 일을 끊임없이 찾아오는 일꾼들의 모습에서 당정책의 정당성을 심층으로 느끼고 또 일터에 대한 애착이 강렬해지며 장수의 열정은 활화산처럼 터져

과학기술도입에서 중시한 문제

2. 8 직동청년탄광 일꾼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백두의 뉘끼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여야 합니다.》

2. 8 직동청년탄광에서 비약적인 생산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그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이탄탄광의 일꾼들이 석탄생산에 실지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기술성공들을 제때에 현장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탄광에서는 판석식적제운반설비와 유엔추진공기 등 석탄생산을 늘일수 있는 여러건의 과학기술성공들이 현장에 도입되었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 판석식적제운반설비를 막장에서 도입하던 과정을 들수 있다.

주변의 탄광에서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탄부들이 판석식적제운반설비를 개발하였을 때였다.

이 설비를 리용하면 원장서 증박작용의 체취를 훨씬 높

2. 8 직동청년탄광 일꾼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입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서 대중의 앞장머리 뒤고 또 뒤머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들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남양탄광 일꾼들과 탄부들이 석탄산을 높이 쌓고있다. 정조부터 현재까지 탄광의 석탄생산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3배이상으로 뛰여올랐다.

생산의 향적장성은 로력, 설비, 자체의 증가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탄광의 로력, 설비, 자체보장조건을 놓고보면 지난 시기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탄광의 석탄생산은 석탄생산에 비해 대우에 열려있었다.

입군 탄광을 찾았던 우리는 탄부들에게 물었다. 그들의 대답은 결경같았다. 탄부들을 위한 일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판결을 가지고 좋은 일을 끊임없이 찾아오는 일꾼들의 모습에서 당정책의 정당성을 심층으로 느끼고 또 일터에 대한 애착이 강렬해지며 장수의 열정은 활화산처럼 터져

2. 8 직동청년탄광 일꾼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입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서 대중의 앞장머리 뒤고 또 뒤머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들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남양탄광 일꾼들과 탄부들이 석탄산을 높이 쌓고있다. 정조부터 현재까지 탄광의 석탄생산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3배이상으로 뛰여올랐다.

생산의 향적장성은 로력, 설비, 자체의 증가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탄광의 로력, 설비, 자체보장조건을 놓고보면 지난 시기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탄광의 석탄생산은 석탄생산에 비해 대우에 열려있었다.

입군 탄광을 찾았던 우리는 탄부들에게 물었다. 그들의 대답은 결경같았다. 탄부들을 위한 일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판결을 가지고 좋은 일을 끊임없이 찾아오는 일꾼들의 모습에서 당정책의 정당성을 심층으로 느끼고 또 일터에 대한 애착이 강렬해지며 장수의 열정은 활화산처럼 터져

주목되는 사슬콘베아의 기술개조

특장탄광기계공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특장탄광기계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이 석탄생산에 필요인 설비와 부속품생산을 다그치면서 체탄탄광에서 리용하던 사슬콘베아를 기술개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특장탄광기계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이번 제작한 사슬콘베아를 통산탄광의 어느 한 체탄탄광에 도입하여 그 우월성이 입증되는데 맞게 리합기업소의 모든 체탄탄광에 널리 일반화하여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적극 이바지할 통이 큰 목적을 제기하고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진명 특필

특장탄광기계공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특장탄광기계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이번 제작한 사슬콘베아를 통산탄광의 어느 한 체탄탄광에 도입하여 그 우월성이 입증되는데 맞게 리합기업소의 모든 체탄탄광에 널리 일반화하여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적극 이바지할 통이 큰 목적을 제기하고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진명 특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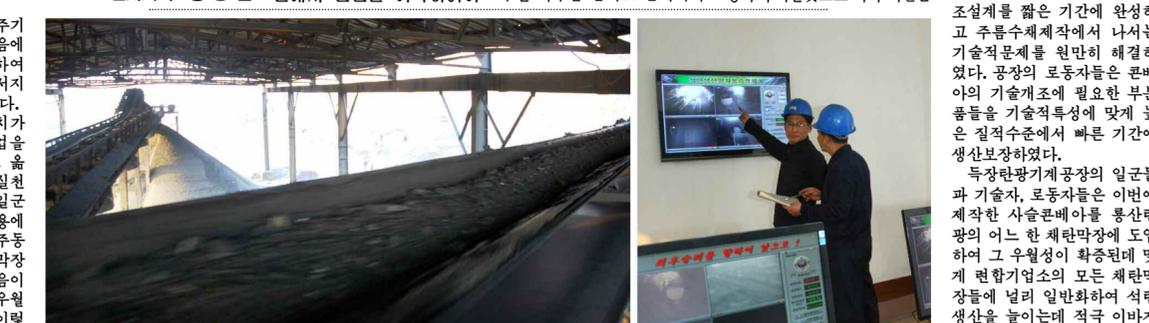
베아를 다른 막장으로 이동할 때 적지 않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특장탄광기계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이번 제작한 사슬콘베아를 통산탄광의 어느 한 체탄탄광에 도입하여 그 우월성이 입증되는데 맞게 리합기업소의 모든 체탄탄광에 널리 일반화하여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적극 이바지할 통이 큰 목적을 제기하고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진명 특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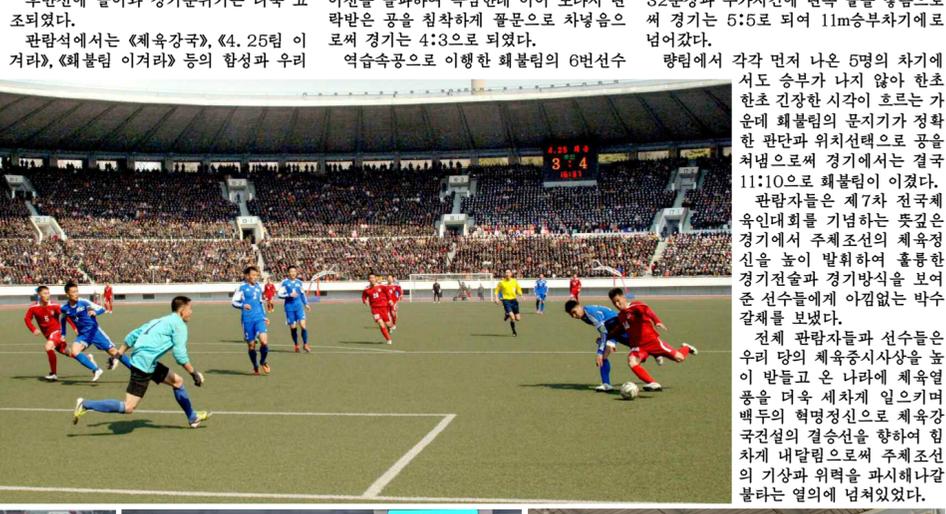
공공구조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석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 명 대 탄 광 에 서 - 본사기자 리진명 특필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기념 남자축구강팀들의 모범경기 진행

【평양 3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온 나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체육인들의 대회합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체육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기념 남자축구강팀들의 모범경기가 26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있었다. 경기장소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위한 장엄한 전군길에서 전국체육인대회를 마련해주고 대회참가자들에게 격려사적인 서한을 보내주고 체육강국건설의 위대한 앞길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체육사업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나갈

열의를 안고 모여온 관중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성원들과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 체육부문 일꾼들, 체육인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청년학생들, 평양시내 각계층 근로자들이 경기를 보았다. 모범경기는 4. 25팀과 화북팀 사이에 벌어졌다. 경기는 관람자들의 흥분을 자아내며 시종 열띤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랭킹 선수들은 백두의 혼연열풍속에 련마한 높은 기술과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며

첫시작부터 치렬한 공방전으로 멋진 장면들을 펼쳐보였다. 4. 25팀에서는 중간지대에서의 공방과 함께 선수들의 민활한 파주기동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공들을 앞질러 빼앗아내면서 경기를 박력있게 운영하였다. 화북팀은 든든한 방어진을 치고 선수들 사이의 높은 결합능력에 의한 조직적인 공격과 불의적인 역습속공으로 대항하였다. 전반전 23분경 화북팀의 공격수 6번 최원선수가 공격마당 오른쪽에서 높게 날아온 볼차기공을 머리받기하여 첫 골을 넣었다. 기세충천한 화북팀에서 공격밀도를 더욱



각각 먼저 나온 5명의 차가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아 한초 한초 긴장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화북팀의 문지기인 정학환과 위치선택이 공을 쳐냄으로써 경기에서는 결국 11:10으로 화북팀이 이겼다. 관람자들은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를 기념하는 뜻깊은 경기에서 주체조선의 체육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훌륭한 경기기술과 경기방식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전체 관람자들과 선수들은 우리 당의 체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의 결승선을 향하여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주체조선의 기상과 위력을 과시해나갈 불타는 열에 넘쳐있었다.

대고조적전장마다에 세차게 끌어버리는 애국의 열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행동에서 나타난다.》

우리 나라 골지의 대동력기 지 북창화학발전연합기업소, 이곳에 가면 사람이라든 의례히 대형보이라굴쪽들과 그 우로 물계물계 타래쳐오르는 흰 연기부터 머리에 오르는 흰 연기까지, 그리고 드넓은 대지수를 꿰지르며 쪽쪽 뻗어나간 송전선들과 거대한 고압전기설비들의 뾰족도 눈앞에 떠오를 것이다.

북창평에 들어서니 이 거창한 대동력기지가 안고있는 중대한 임무가 새삼스럽게 안겨와 우리의 가슴에서 아찔했다. 현지에 이르러 처음으로 만난 연합기업소일꾼인 김순범동무의 심정도 우리가 다들 바 없었다.

《정말이지 지금처럼 우리의 어깨가 무거워졌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다. 온 나라가 우리를 바라보고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모두가 바빠 버리고있습다. 아마 그 어느 전두현장에서 나가보아도 우리 종업원들의 투쟁열의가 얼마나 드세한가를 잘 알

힐 연기 아래쳐오르는 곳에서 만난 사람들

전력중산의 동음세찬 북창화학발전연합기업소에서

수 있습니다.》

확신에 찬 그의 이야기는 하차직장전투현장으로 떠나는 우리의 발걸음을 더 힘껏 떠밀어주었다.

전력생산에서 첫 공정을 담당하고있는 직장, 교대당 많은 석탄을 부리워야 하는 방대한 작업량을 새해 정초부터 오늘까지 드림없이 넘쳐 수행해왔다는 이 직장의 자랑스러운 성과가 우리의 마음을 팔리게 하였다.

하차직장현장으로 걸음을 두루치던 우리는 마침 직장인인 백문철동무를 만났다. 혁신의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직장일꾼은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지난 정월초하루 오정철동무파괴가 첫시작부터 1800여의 석탄을 하차했습니다. 그들의 뒤를 이어 매 교대마다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차직장의 성과가 더 우리 동무들의 몫이라고만 말할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호기심을 품고 다음 말을 기다리는데 문득 정중한 휘주아소리가 터졌다. 둘러보아 하차현장에서 멀

창조의 보람과 희열에 넘쳐

덕천은하회복공장의 로동계급

위대한 투쟁에서 로동계급의 순결한 희생과 의리를 다해가려는 오랜 투쟁의 정진은 지배인들을 짓밟고 물러나오게 하였다. 그날부터 김명복동무는 자신부러 맡은 일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것과 함께 작업반원들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한계선 끌어올리기 위해 시간과 정열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모범을 따라 모든 작업반원들이 분발해나갔다. 하여 2작업반은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매일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저녁이면 스스로 문화후생시설건설에 참가할꺼리는 김명복동무였다.

《지배인들에게 한가지 칭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맨 그는 전체 작업반원들이 오늘부터 하루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는 것과 함께 매일 저녁 공장에서 진행되고있는 문화후생시설건설에 참가할꺼리를 얘기해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자기 뭇만 헤서는 도무지 생활감 없습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 소식을 듣고는 공장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로 부글부글

마음속에 10월의 벵바다 설레인다

황주군 포남협동농장

영적이 나서...》

역시 농장적으로 소문난 실농분조장이 다르다고 하는 작업반장에 그는 손을 내저으며 지금 탈곡장마당에서는 당세포비서 최관길동무와 1분조장 리금희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원들이 올해 농사를 잘 지을 방도를 놓고 이야기들을 하고있다고 했다. 강산이 얼어붙은 그대 벌써 작업반장으로부터 분조장, 농장원들이 이르러까지 모두가 올해 농사를 더 잘 지을 생각으로 가슴깊이 고있었던 것이다.

그날 작업반들과 자리를 같이한 총성규동무는 말하였다.

《봄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다. 또 풍요로운 가을도 우리 손끝에서 마련된다것을 명심합시다.》

이렇게 그들은 앙양된 열의 속에 조국해방 일흔륙과 당장 건설 일흔륙이 되는 뜻깊은 올해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한 첫걸음을 기세드높이 내질렀다. 어느 분조에 가나,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시작이 절반이

제8작업반 농장원들

추적전을 벌였다.

어느날 2분조에 나가 작업반원들과 함께 땅을 흠뻑 흘려서 거름더미를 쌓고 돌아오던 송성규동무는 누구인가 오던 길을 되돌아가는것을 보았다. 1분조와 2분조 농장원들이 순백대기로 개바다늪과 기와 흙갈이를 다그치느라 기세를 올리고있을 때 4분조장 일현민동무와 분조원 리봉우동무, 5분조의 박영희동무를 비롯한 다른 분조농장원들도 구운흙생산을 늘려서 거름더미를 짓기, 흙비료생산을 앞설것을 해나갔다.

본조장에서 매일매일 거름생산이 눈에 띄이게 높아지는 속도에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버렸다. 개바다늪과 기와 흙갈이를 본래있던 내림이 앞장에서 달려던 2분조를 앞서는 4분조가 거름생산전투를 적극적으로 벌려 따라잡았다. 4분조의 거름생산실적을 며칠 지나지 않아 1분조 농장원들이 보기 좋게 뛰어넘었다. 그러면 다른 분조의 농장원들이 집집마다 분조와 기와, 구름제와 전기생생산 등 가능한 모든 거름현원을 탐구하면서 맹렬한

기운을 안고 모여온 관중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성원들과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 체육부문 일꾼들, 체육인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청년학생들, 평양시내 각계층 근로자들이 경기를 보았다. 모범경기는 4. 25팀과 화북팀 사이에 벌어졌다. 경기는 관람자들의 흥분을 자아내며 시종 열띤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랭킹 선수들은 백두의 혼연열풍속에 련마한 높은 기술과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며 첫시작부터 치렬한 공방전으로 멋진 장면들을 펼쳐보였다. 4. 25팀에서는 중간지대에서의 공방과 함께 선수들의 민활한 파주기동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공들을 앞질러 빼앗아내면서 경기를 박력있게 운영하였다. 화북팀은 든든한 방어진을 치고 선수들 사이의 높은 결합능력에 의한 조직적인 공격과 불의적인 역습속공으로 대항하였다. 전반전 23분경 화북팀의 공격수 6번 최원선수가 공격마당 오른쪽에서 높게 날아온 볼차기공을 머리받기하여 첫 골을 넣었다. 기세충천한 화북팀에서 공격밀도를 더욱 높여나가는 가운데 3분후 24번 리천일선수가 깎아찬 볼차기공이 상대팀 선수들의 장벽을 뚫고예에 들어 그대로 그물에 걸렸다. 41분경에는 화북팀의 6번선수가 4. 25팀 방어진이 허물어진 기회를 리용하여 측면에서 가법체 차넣은 공이 또다시 득점에 이어졌다. 세골을 먼저 먹은 불리한 상태에서도 완강한 정신력으로 공격력을 높인 4. 25팀에서 10번 엄철성선수가 전반전 추가시간에 자기팀이 구축하지 못한 것을 낮은공으로 묘하게 처리하여 득점에 성공시켰다. 후반전에 들어와 경기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관람석에서는 《체육강국》, 《4. 25팀 이겨라》, 《화북팀 이겨라》 등의 함성과 우리

